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돌스도이의 사위가
직접 만든 신발을 선물하자
돌스도이가 말했습니다.



가을. 걷기도 좋고 책읽기도 좋을 때입니다.

[제 1독서] 아모 6, 1ㄱ-4-7
[화 답 송] 시편 146(145), 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1티모 6, 11ㄱㄷ-16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복 음] 루카 16, 19-31

성가	8시 미사	입당 459	봉헌 212	성체 179	파견 283
	11시 미사	입당 459	봉헌 212 217	성체 179 501	파견 289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26주일(9월 29일)		연중 제 27주일(10월 6일)		연중 제 28주일(10월 13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이바로로(명국)	허세실리아(홍숙)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구미카엘(창희)	이바로로(명국)	이베드로(기만)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김테레사(승희)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무관심의 죄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3무 시대’ 를 살고 있습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는 자신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각자 오직 제 살길만을 찾으며, 극도의 무관심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사회정의나 공동선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과 어머니를 살해해서 매장한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없고 서로가 남의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람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는 호화롭고 풍족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에 무관심한 부자들에게 대해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아모6,1)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아모6,7)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신만 걱정 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단죄의 선언입니다. 한편, 오늘 복음에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루카 16, 19-31)'가 나오는데, 살아서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고통을 받는 곳으로 가고, 살아서 병든 몸으로 구걸을 하며 살았던 라자로의 죽어서 위로 받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부자가 받아야 할 단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서 고통 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도대체 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죄입니다. 자신은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라자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무관심이 바로 그의 죄입니다. 무관심은 실로 매우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는 충실하고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티모6, 11-12)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은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바로 옆에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호화로운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큰 죄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부자여, 삼가고 두려워하라

오늘 복음에서 이 비유 말씀의 주된 대상은 가진 자들로 보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천 년 전의 이 비유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는 개인 내지 단독 소유 관념이 현대자본주의의 출발이요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만의 소유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 부자가 라자로에게 한 것처럼, 바로 이웃의 고통에 눈감기 십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더불어 자연환경 파괴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패악을 생각해 보면, 사적 소유 관념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공유의 관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 소유의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많은 영역을 공용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실은 우리 모두에게 공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임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봤으면 하는 점은, 사물을 파악할 때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부만 보며 판단하면 당연히 사물을 왜곡시키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앙의 힘에 의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어렵듯이 알고 있고, 놀라운 희망을 안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저 육신이 살아 있는 이 생명 내지, 삶이 전체인 양 알아듣고 행동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왜곡과 오류를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는 저울추가 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법입니다.

저승에 있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라자로 또한, 삶과 죽음을 함께 한 전체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저울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살아생전, 죽음을 염두에 두며 얼마나 많은 행동과 생각을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때문에 현세에서 평등과 정의를 위해 투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짚었으면 하는 점은, 이런 모든 사정을 알아듣는데 무슨 특별한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이야기 하듯, 죽은 이가 살아가서 메시지라도 전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건강한 상식과 양심을 지닌 이라면 누구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회개가 필요한지 아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특이한 체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는 더더욱, 자신이 무슨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지극히 삼가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예수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제 마음을 당신 마음과 닮게 하소서.

글_가브리엘레 플로코니스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잠들기 전에 가야할 먼 길 2

주님께서 ‘잠들기 전에 가야할 먼 길’ 을 서두르신 것은 ‘엠마오로 가는 길’ 에서처럼 부활하신 이후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생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 11,28)라고 말씀 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저희들의 허덕이는 고생과 무거운 짐을 ‘멍에’ 처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쓴 최후의 모습’ (요한 19,2 참조)처럼 가시밭길의 연속이셨습니다.

오죽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루카 9,58)고 한탄하셨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에는 주님이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장면이 한군데 나옵니다. 그곳은 방도, 침대도 아니며 한적한 들판도 아닙니다. 조각배 안입니다. 배 안이라 해서 안락한 선실도 아니고 ‘뱃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르 4,38)

그것도 ‘거센 바람이 일어 물결이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거의 가득 차게 된 배’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습니다.” (마르 4,38)라고 ‘성화’ 를 부리며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잠잠해 집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겁이 많은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유언으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는 말씀을 남긴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곳은 바로 ‘제 마음(心)’ 속 임을.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르 4,35) 호수 저편은 이승의 번뇌를 해탈한 유토피아, 즉 피안(彼岸)의 세계. 저는 주님을 제 배에 모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 갑니다. 어떤 때는 바람에 돛이 부러지고, 거센 파도가 배안까지 들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마음의 뱃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주무시는데 제까짓 바람과 바다가 어찌 배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만 ① 거센 바람을 보자, ② 무서운 생각이 들어, ③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지르며 성화를 부립니다.

거센 바람의 의심과 죽게 되었다는 맹목의 두려움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트리는 교활한 악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명령하신 것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제 믿음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주님은 제 마음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아,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깨우지 않고 멍멍 개야, 짓지 마라. 쉬잇! 꼬꼬닭아, 울지 마라. 췌! 달빛은 영광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보내주는 이 밤. 잘 주무세요, 우리 주님! 하고 자장가를 부를 수 있도록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29) 저에게 굳은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

최인호 베드로 | 작가

머무름

의사, 약사, 간호사, 원목자, 남녀 수도자, 병원 운영자와 자원 봉사자 등 의료인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그들에게 인간 생명의 수호자와 봉사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89항

가톨릭전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요?”

열 개의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것은 열 개 모두가 소중한다는 말입니다. 각각의 손가락은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손바닥과 하나가 되어 수많은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첫 번째인 엄지손가락은 다른 것들에 비하여 아주 중요하며 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엄지의 부재는 손의 기능을 근본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명 5,6-7)라는 이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것들의 근본 바탕이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시작됩니다. 이 첫마디는 이 땅의 5천만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헌법은 이 나라 질서의 뼈대를 이루고, 국민의 자유로운 삶과 인간적인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느님을 알아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열 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갖는 의미는 막중합니다. 그 계명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드러내 줍니다. “하느님의 첫 번째 요청과 정당한 요구는 인간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흠송하라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097항)

흠송은 성모님께서 노래하셨듯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큰일을 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자신을 낮추는 흠송을 통해서 인간은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우상숭배에서 해방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우상숭배는 인간의 삶을 허무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우상들의 박람회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 쾌락, 잡신이나 마귀, 인종, 조상, 국가, 재물 등 인간이 하느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고 공경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느님과의 친교와 결코 나란히 갈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단 한 번으로 극복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공경을 멈추는 순간 여러 가지 피조물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잠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사도는 바람에 놀라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피조물인 바다에 빠져 들어 생명을 위협받습니다.(마태 14,28-30 참조)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한 첫 번째 계명은 확고하고 단호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재물은 오늘날 최고의 우상이 되어 영혼을 침식하며 날마다 세력을 넓혀갑니다. 재물은 참 사랑을 위한 도구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는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 (「가톨릭교회교리서」 2087항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는 성경의 첫 말씀은 성경을 끝까지 관통하며 비취 줍니다.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가르침의 초석이며, 인간의 취약점인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첫 번째 계명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며 최고의 유산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마태 4,10)

서울 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2083-2132항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1	179	45	305
헌 금	\$544	\$1,158	\$58	\$1,760

< 교무금 > \$5,920

정창희(9) 정일양(9) 이완수(9-10) 황현숙(9-10)
이진열(9-10) 조승구(8-10) 김명환(8-10) 변귀태(9)
주봉진(1-12) 황혜정(1-12) 추현홍(8-9)

< 성소후원금 > \$210

정창희(9) 주봉진(1-12)

< Bishop's Appeal >

주봉진(1-12)

< 감사헌금 > -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 지난주 봉헌 : 익명 \$300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9월 29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유주호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남루시아/오마리아	양엘리사벳
	생	노소피아(용례)	찬미성가대
	생	김소피아(희정)	전례성가대
	생	박스테파노/실비아	박데레사
	생	조베드로(찬구)	조데레사
	생	육마이클/정마이클	성도미니카
10월 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유주호	가족
	생	팽데레사 영명축일	하늘의 문 Pr.
	생	김데레사 영명축일	박세레나
	생	서데레사 영명축일	박세레나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넷
	생	전안드레아/데레사	전아네스
10월 2일 수	연	유주호	가족
	연	권요한/서아가다	김카타리나
10월 3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연	유주호	가족
10월 4일 금	연	유주호	가족

~~~~ 오늘 간식은 권창모 미카엘 닉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항 -

◆ 전례안내

10월 3일(목) : 성시간  
10월 5일(토) : 성모성심미사(꾸리아월례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

10월 4일(금) 저녁 9시부터 10월 5일(토) 아침 7시까지

◆ 다음주 10월 6일에는 평화신문 미주지사장 김영춘 베드로 신부님이 평화신문 홍보차 방문하시어 함께 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 2차 헌금 안내

10월 6일 : Catholic Voice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사목회의 : 9월 29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아침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 체크북

목적 : 신앙의 해 다섯 가지 표어 중에서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의 실천방안으로 묵주기도성월 한 달 동안 기본 기도를 생활화 함  
기간 : 10월 1일 - 31일  
배부 : 성전 입구 (1인당 1개씩)

◆ 본당 창립 29주년 기념 및 장학 기금 모금 골프대회

일시 : 10월 5일(토) 12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Oakland)  
참가비 : 남성 \$100, 여성 \$80  
- 그린피, 카트비, 기념품 및 저녁식사 포함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요아킴/안나회 모임 - 조마오로 수녀님 특강

일시 : 10월 6일(점심식사 후) : 누구나 참석 가능  
\* 1강의 :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가엾은 마음이, (루카15,20)  
\* 2강의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요한15,12)

9월 구역모임 콜로세서 1-2장

|       |              |            |
|-------|--------------|------------|
| 2 구역  | 9월29일(일)6시반  | 정일양 안드레아 맥 |
| 5 구역  | 9월29일(일)12시반 | 대건회관       |
| 8-1구역 | 9월29일(일) 5시  | 팽현팔 하비에르 맥 |

◆ Chautauqua 행사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반  
장소 : St. Jarlath Church  
2620 Pleasant St. Oakland, CA 94602  
\*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15을 장학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10월 Hair Cut 봉사는 첫째, 셋째 주입니다.

◆ 다음주 10월 6일에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레이더스 흥경기가 있습니다. 880보다는 580을 이용하시는 것이 미사시간에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월 13일에는 9구역에서 미역국밥을 \$3에 판매합니다.

◆ 지난 주 새로 오신 분

6 구역 : 안순자/유경미 가정  
9 구역 : 신공진/신기수 크리스티나 가정

◆ 2014년 본당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실 510-553-9434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반  
- 주일학교 open house: 10월 6일 12:30 pm 친교실

안국학교 소식

- 10월 5일 :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